

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



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7. 29.(수)	사진 · 영상	사진(○), 영상(×)
보도일자	2026년 7월 29일(수)부터		
담당부서	의회운영전문위원	담당자	박대종 전문위원(044-300-7410)
			김현정 주무관 (044-300-7414)

세종시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

- '시민 체감 성과'와 '도시 성장 기반' 중심의 2조 2,931억원 규모 추경 심사 완료 -

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(의장 안신일)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위원장 박란희)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「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」을 심사했다.

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29억원보다 2,102억원(10.09%) 증가한 2조 2,931억원 규모다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,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원 등 세출예산안을 증액하는 한편,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해 수정가결했다.

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도시 성장을 목표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을

심사하면서 교육·복지·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 배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.

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, 삭감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.

또한 위원들은 재정 분석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고,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재구조화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.

한편, 세종시가 제출한 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」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 규모는 기정계획 2,727억원보다 190억원 (6.99%) 증액한 2,917억원으로 편성됐으며,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.

제5대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, 첫 예산안 심사를 마친 박란희 위원장은 “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”라며 “도시의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,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「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」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